

문방구 추억속으로

학교 앞 풍경이 바뀐다

학생들 무인점포로

학생수 급감·교육청 준비물 지원에 광주·전남 문방구 폐업 잇따라 저가매장·아이스크림 가게서 학용품 구입...온라인 쇼핑몰 이용도

광주·전남지역 학교 앞 풍경이 변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 학생들로 붐비던 문방구가 사라지고 있는 탓에 학교 인근 무인점포에서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고, 학생들은 방과후 친구들과 모여 다 이소로 발길이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준비물을 온라인 쇼핑몰 배송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2~2042년 광주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자료상 유소년(0~14세) 인구는 2022년 18만 5000명에서 2042년 11만 7000명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학령인구(6~21세)는 같은 기간 24만 7000명에서 12만 3000명으로 50.2% 줄어든다. 초등학교생은 2022년 8만 5000명에서 2034년 4만 2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지난 2011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준비물을 최저가 입찰을 통해 일괄 구매하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시행돼 광주·전남 학교 앞 문방구가 점차 폐업을 하고 있다.

대신 저렴한 가격이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학교 인근 무인 매장에서 문구나 완구를 판매하면서 아이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26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풍영초 인근 한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에는 아이스크림 외에도 공책, 연필, 사프 등 문구류를 팔고 있었다.

단색 펜부터 형광펜, 아이돌 포토카드와 앨범, 학

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포켓몬 카드 등도 진열돼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온 학생들은 펜과 포토카드 등을 들여다보며 호기심을 가졌고 능숙하게 무인 계산대를 이용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 사장 강모(40)씨는 "학교 주변에 문구점이 많지 않다보니 어린 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 뿐 아니라 문구점에서 사야 할 물건들을 구입해야 할 때 자주 찾는다"고 설명했다.

개당 500원에서 3000원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지만 하루 문구류 매출만 5만원에 달할만큼 인기가 좋다는 것이 강씨의 설명이다.

송하윤(여·14·서구 유촌동)양은 "요즘 문구점이 많이 없는데, 무인매장은 이곳저곳에 많다보니 무인매장에서 문구류를 자주 산다. 필기류를 더 다양하게 팔면 지금보다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방과후 '다이스 쇼핑'이 하나의 놀이로 정착되기도 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하

교길 아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다이소에는 옛날 얼굴의 초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문구용품을 구경하고 있었다.

학용품, 반짝이는 스티커부터 캐릭터 인형, 알록달록한 머리끈, 과자와 젤리까지 '없는 게 없는' 다이소에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작은 수첩과 캐릭터 볼펜 등을 고른 학생들은 들뜬 표정으로 계산까지 마쳤다.

이날 부모와 다이소를 찾은 유혜은(여·10)양은 "다이소는 우리 초등학생들의 놀이터"라고 웃어보였다.

유 양은 "주말에도 부모님한테 다이소에 가자고 조른다. 동네 문구점보다 물건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모님 생활용품 사러 갈 때 꼭 따라온다"며 "친구들도 대부분 다이소나 쿠팡으로 갖고 싶은 물건을 고른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자녀 학교 준비물을 온라인 쇼핑몰에 의존하고 있다. 전남 오후 배송을 시키면 다음날 새벽 집앞에 배달이 돼 있어 편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초등학교생 키우고 있는 전모(여·35)씨는 "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해야 할 물건이 많은데 학교 앞에 문구점도 없을뿐더러 새벽배송이 가능해 저렴하고 빠르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쇼핑으로 입학 전 대부분의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방구를 운영하던 지역민들은 업종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서구 화정동에서 29년째 학교 앞 문구점을 운영하는 나모(여·60)씨는 문구류 판매 공간을 줄이고 환경에 활인마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나씨는 "학교에서 준비물을 다 챙겨주고, 다이소가 워낙 저렴하게 팔아서 예전처럼 학생들이 잘 오지 않는다"라며 "10년 새 주변 문구점 5곳 중 우리만 살아남아서 간신히 운영 중"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대한독립 만세

26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광주북구청 직원들과 어린이집 원생들이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하는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이근배 전남대 신임 총장 공식 업무 시작

이근배(사진) 신임 전남대학교 총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남대는 "이 총장에 대한 임명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6일 제73회 전남대학교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9년 2월 25일까지 4년간이다.

이 총장은 전남대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의학석사, 2000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내 정책외교와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2023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서 선정됐다. 2015년 EBS '명의' (즉부족관절 분야)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연구와 임상 활동을 펼쳐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대상을 비롯한 다수의 학



술상을 수상했다.

전남대학교직선제 초대 교수회장과 평의원회의장(2017~2019)을 역임했다.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 학교가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과 연구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취임식은 별도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학교 기숙사 한 번 무단 이탈했는데...재입사 불가 징계는 과해"

인권위, 전남 한 고교에 개정 권고

학교 기숙사에서 한 차례 무단 이탈했다며 학생에게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퇴사 조치를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전남지역 한 고등학교장에게 규정 위반의 경중과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교생 보호자는 "학생이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 규정 위반에 대해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 퇴사 조치 결정은 과도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의 무단 이탈에 따라 기숙사 운영 위원회를 개최해 규정에 따라 퇴사를 결정했다"며 "다만 퇴사 시점을 중간고사 이후로 조정하고 12개월의 퇴사 기간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대 6개월, 최소 4개월 내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취침 직후 후 무단 외출은 심야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한 바 퇴사 조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면서 "해당 학생의 경우 부모가 타 지역에서 매일 통

학을 지원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데다 장거리 통학은 대학입시 준비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해 6개월 내지 12개월 간의 장기퇴사 조치를 한 점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피진정인에게 봉사활동 부과, 1 내지 3개월 간의 퇴사 등 선도조치의 수준을 유연하게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남구 "통일열차 곧 출발, 탑승객 모집합니다"

3월 12~15일 행복센터서 접수

광주시 남구가 한반도 분단 현장을 체험하는 통일열차 탑승객을 모집한다.

남구는 "분단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반기 통일열차에 탑승객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일열차는 남구 송하동 효천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을 가는 열차와 강원도 철원을 가는 열차 등 2개 코스로 운영된다.

4월 10일 철원 코스, 5월 22일 파주 코스 등 두 차례 운영되며, 65세 이상 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탑승객들은 열차 운임과 식비, 현장 견학비를 포함해 파주 코스는 8만원, 철원 코스는 9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탑승 신청서는 먼저 현장 접수를 받은 뒤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현장 접수는 오는 3월 12~15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파주 코스 72명과 철원 코스 100명 등 총 172명을 모집한다.

탑승객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18일 남구TV 유튜브 채널과 개별 문자를 통해 통보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2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접수 사이트는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며, 파주 탑승객 108명과 철원 탑승객 150명을 각각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	
	수시	정시
인문사회	30	5
신학과	1	1
한국어교육학과	24	5
복지상담융합학부	8	2
사범	21	8
예능	84	21
총계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www.uwayapply.com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30로 36